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검증*

김 경 민¹⁾

최 정 원²⁾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대학원 생활과학과

본 연구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데이터 중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 318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및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자료분석은 PROCESS macro의 Model 4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우울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으며 삶의 만족도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으며, 그 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고 삶의 만족 수준이 낮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에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준다면 우울감 감소와 삶의 만족도 향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 사회적 낙인감, 우울,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한 논문임.

1)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교육연구단, 연구교수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hippojw@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교육개발원(2020)의 학업중단을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학업중단자는 초등학생 18,366명(0.7%), 중학생 10,001명(0.8%), 고등학생 23,894명(1.7%)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단하는 청년의 수가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수치임을 감안해본다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자신에 대한 비관적 시선, 주변인에게 낙인찍히는 경험 등으로 부정적 정서를 많이 경험하고(오혜영, 박현진, 공윤정, 김범구, 2013), 일반적인 청년들이 경험하는 삶의 정규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느껴 갑작스러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한다(McHugh, 2015). 학업중단은 개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일반 청년들에 비해 우울을 많이 경험하는 반면,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문화진, 2019; Liem, Lustig, & Dillon, 2010). 특히 정규교육을 대체할 대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제도적 혜택이나 지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정신건강 측면에 대한 특별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박주영, 우정희, 202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18)에 따르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

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중 선입견, 편견, 무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 대해 무조건적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며(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이로 인해 실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 부터 부정적인 낙인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화명, 김영미, 2017). 사회적 낙인 감이란 사회나 집단 등에 의해 형성된 인식으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Vogel, Wade, & Haake, 2006). 낙인이론(Link, Cullen, Struening, Shrout, & Dohrenwend, 1989)과 일반긴장이론(Agnew, 1992)에 의하면, 사회적 낙인감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Mickelson & Williams, 2008; Rose, Joe, & Lindsey, 2011)에서 가난이나 인종, 장애 등과 관련된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라는 사회적 낙인감 역시 우리나라 청년들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박동진, 김나연, 2019; 박지선, 2020; Kwon, 2020), 우울을 통해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형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반지윤, 이정민, 2021;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전숙영, 2020). 따라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

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요인들에 대한 탐색과 함께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지원방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최홍일, 이래혁, 2020). 단순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적게 느끼는 것에서 나아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긍정적 적응과 성장에 관한 연구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조혜영, 2019). 또한 삶의 만족도는 청년기 발달 및 내외적 문제행동 등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Suldo & Huebner, 2006)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이들의 행복 수준 증진과 삶의 전반적 적응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선입견이나 편견, 무시 등과 같은 사회적 낙인으로 나타난 점을 미루어보아(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내재적 문제뿐만 아니라(한아름, 2020) 외현화 문제(이화명, 김영미, 2017)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커니즘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삶의 만족도 수준을 감소시키는 위

험요인이라면,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비록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더라도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 수준을 증가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이자 개인의 내외적 자원인 개인적 특성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우선,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여기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현재의 발달뿐만 아니라 이후의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Cooley, 2006; Erikson, 1968).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Rosenberg, 1965),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부정적 낙인이 내면화되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최홍일, 이래혁, 2020). 낮은 자아존중감은 불안한 정서 상태를 갖게 하여(Rosenberg, 1965) 높은 우울이나 낮은 삶의 만족도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에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낙인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공통된 결론(박동진, 김나연, 2019; 박주영, 우정희, 2020)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한아름, 2018;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 정서 확장-형성 이론(Fredrickson, 2001)에 따르면 청소년이 형성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이 형성한 긍정적 정서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자원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며, 이렇게 축적된 긍정적 자원은 삶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박동진, 김나연, 2019; 전숙영, 2020)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보아, 자아존중감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 특성으로 자아탄력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위기상황이나 역경에서 융통성있게 반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아통제 수준을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선행연구에서도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도 우울을 경감시키고(Liu et al., 2019), 스트레스에 대처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발 가능한 능력(양효선, 김영혜, 2011)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았으며(박지선, 2020; 이종남 등, 2020),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며(박주영, 우정희, 2020), 행복감과 학교적응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권세원, 이해현, 송인한, 2012). 이를 미루어보아, 자아탄력성 역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

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매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경험에 있는 청년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낙인감은 낙인을 내면화하는 자기낙인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Vogel, Bitman, Hammer, & Wade, 2013)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있어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 역시 정규 교육을 벗어나 사회적 낙인감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에게 중요한 보호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추정하는 병렬다중매개모형(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을 적용하여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중 어떤 요인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후,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영향에 주목하여 이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부정적 낙인을 유연하게 극복하고 개인의 강점을 살려 우울을 감소시키고 삶의 만족도 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삶의 만족도는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8)의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는 학업 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대면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5차년도 자료에는 총 318명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나이의 평균은 25.64세($SD = 1.17$)였으며 나이의 범위는 22세부터 28세까지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대상 중 남자는 167명(52.5%), 여자는 151명(47.5%)이었다. 주관적 가정의 경제수준은 42.1%가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5.2%가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70.1%) 일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거나(14.8%) 일시적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13.8%)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검정고시로 취득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8.0%이었으며, 과반수 이상(54.4%)이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조사 시점의 학업 중단 및 복교 상태는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고교 미진학,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 포함)가 145명(45.6%)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에 진학한 상태(37.1%),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6%), 대학을 졸업한 상태(5%), 대학을 중퇴한 상태(3.5%),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2.8%)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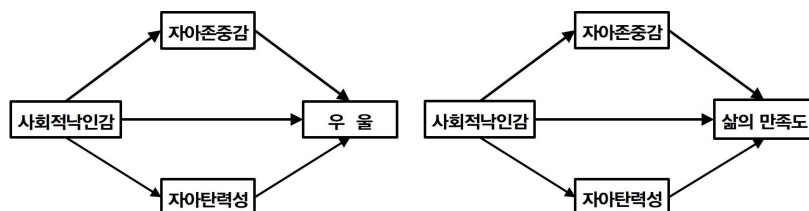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 318)

변인		n	%
성별	남	167	52.5
	여	151	47.5
가정의 경제수준	매우 못 사는 편	10	3.1
	못 사는 편	111	35.2
	보통 수준	134	42.1
	잘 사는 편	62	19.5
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님과 함께 거주	223	70.1
	독립하여 거주	47	14.8
	일시적으로 따로 거주	44	13.8
	무응답	4	1.3
졸업자격 취득여부	취득 안함	56	17.6
	검정고시로 취득함	89	28.0
	무응답	173	54.4
대학진학여부	진학하지 않음	173	54.4
	진학함	145	45.6
중단/복교 상태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145	45.6
	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9	2.8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검정고시 합격 제외)	19	6.0
	대학에 진학한 상태	118	37.1
	대학을 졸업한 상태	11	3.5
	대학 중퇴	11	3.5

주.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에는 고교 미진학/미인가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 후 미진학자가 포함됨.

2. 측정도구

사회적 낙인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에서 사용한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삶의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낙인감은 Harvey(2001)가 개발한 Stigmatization Scale을 주금옥(2002)이 번안한 10개 문항 중 배주미와 김동민, 정슬기, 감태훈, 박현진의 연구(2010)에서 사용한 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사회

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최인재와 모상현, 이선영의 연구(2012)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7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를 유성경과 심혜원(2002)이 번역한 후, 김지경과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가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문항 중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에서 일부 선정한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

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8로 나타났다.

우울

우울은 김광일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 중 우울 척도의 일부 문항을 제외하고 수정한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기운이 별로 없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1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김신영과 동료들(2006)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이종원 등, 2013)에서 수정 및 보완한 3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는 사는게 즐겁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8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먼저, 주요 변인들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여 병렬다중매개모형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고,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에는 PSAP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어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

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첫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r = .49, p < .001$),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r = -.41, p < .001$) 있으며, 자아존중감($r = -.42, p < .001$)과 자아탄력성($r = -.34, p < .001$)과는 모두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은 자아존중감($r = -.54, p < .001$), 자아탄력성($r = -.55, p < .001$)과 부적 상관이, 삶의 만족도는 자아존중감($r = .66, p < .001$), 자아탄력성($r = .55, p < .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우울에

표 2.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318$)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삶의 만족도
사회적 낙인감	1.00				
자아존중감	-.42**	1.00			
자아탄력성	-.34**	.64***	1.00		
우울	.49***	-.54***	-.55***	1.00	
삶의 만족도	-.41**	.66***	.55***	-.68***	1.00
평균	1.98	2.97	2.77	2.07	2.59
표준편차	.45	.50	.54	.57	.61
왜도	-.29	-.12	.19	.06	.04
첨도	-.07	1.26	.33	.21	.56

*** $p < .001$.

표 3.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 (N = 318)

			B	β	SE	t
총 효과			.62	.49	.06	9.95***
직접효과						
사회적 낙인감(IV)	→	우울(DV)	.37	.29	.06	6.18***
사회적 낙인감(IV)	→	자아존중감(MV1)	-.48	-.42	.06	-8.31***
사회적 낙인감(IV)	→	자아탄력성(MV2)	-.40	-.34	.06	-6.36***
자아존중감(MV1)	→	우울(DV)	-.24	-.21	.07	-3.66**
자아탄력성(MV2)	→	우울(DV)	-.34	-.32	.06	-5.76***
			B	Boot SE	95% CI	
					Boot LL	Boot UL
간접효과 전체			.25	.04	.17	.34
사회적 낙인감 → 자아존중감 → 우울			.11	.04	.04	.20
사회적 낙인감 → 자아탄력성 → 우울			.14	.04	.07	.21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02	.06	-.15	.10

** $p < .01$. *** $p < .001$.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은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매개)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인들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B = .62, p < .001$)는 우울 분산의 23.85%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1, 316)} = 98.95, p < .001$). 다음으로, 매개변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37, p < .001$). 끝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B = .25, 95\% \text{ CI} = .17 \sim .34$), 세부적으로도 자아존

중감($B = .11, 95\% \text{ CI} = .04 \sim .20$)과 자아탄력성($B = .14, 95\% \text{ CI} = .07 \sim .21$)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2, 95\% \text{ CI} = -.15 \sim .10$).

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병렬다중매개효과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 4.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효과 및 직접효과

(N = 318)

			B	β	SE	t
총 효과			-.55	-.41	.76	-8.00***
직접효과						
사회적 낙인감(IV)	→	삶의 만족도(DV)	-.19	-.14	.06	-3.15**
사회적 낙인감(IV)	→	자아존중감(MV1)	-.48	-.42	.06	-8.31***
사회적 낙인감(IV)	→	자아탄력성(MV2)	-.40	-.34	.06	-6.36***
자아존중감(MV1)	→	삶의 만족도(DV)	.58	.48	.07	8.79***
자아탄력성(MV2)	→	삶의 만족도(DV)	.21	.19	.06	3.54**
			B	Boot SE	95% CI	
					Boot LL	Boot UL
간접효과 전체			-.36	.06	-.49	-.25
사회적 낙인감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			-.28	.05	-.39	-.18
사회적 낙인감 → 자아탄력성 → 삶의 만족도			-.09	.34	-.15	-.03
간접효과 간 차이검증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			-.19	.07	-.33	-.07

** $p < .01$. *** $p < .001$.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매개)효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인들을 통해서 미치는 간접효과를 합친 총효과($B = -.55$, $p < .001$)는 삶의 만족도 분산의 16.83%를 설명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_{(1, 316)} = 63.96$, $p < .001$). 다음으로, 매개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낙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9$, $p < .001$). 끝으로, 사회적 낙인감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유의하였으며($B = -.36$, 95% CI = $-.49 \sim -.25$), 세부적으로도 자아존중감($B = -.28$, 95% CI = $-.39 \sim -.18$)과 자아탄력성($B = -.09$, 95% CI = $-.15 \sim -.03$)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 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가 자아탄력성의 간접효과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B = -.19$, 95% CI = $-.33 \sim -.07$).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과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

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이 사회적 낙인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및 우울 수준이 높으며,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우울이 사회적 낙인감(박동진, 김나연, 2019; 박지선, 2020), 자아존중감(김민선, 2019), 자아탄력성(박지선, 2020; 이종남 등, 2020)과 관련이 있으며, 삶의 만족도가 사회적 낙인감(최홍일, 이래혁, 2020), 자아존중감(전숙영, 2020), 자아탄력성(박주영, 우정희, 2020)과도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적 측면인 우울과 삶의 만족은 단순히 그들 개인적 특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이 속해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변화가 생겨야함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감을 느끼더라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외부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다면 우울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와 청년기 스트레스 사건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Dentale, Vecchione, Alessandri, & Barbaranelli,

2020)와 유사한 맥락에 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완충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Wang, Chen, Gong, & Yan, 2016)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적 낙인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우울을 감소시키는 보호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낙인감과 자아존중감 간의 부적 관계(박동진, 김나연, 2019; 박주영, 우정희, 2020)와 자아존중감과 생활 만족도 간의 정적 관계(한아름, 2018; 허미정 등, 2016)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상처이론(Rohde, Lewinsohn, & Seeley, 1990)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상처이론에서는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은 자아존중감을 낮추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부정적 행동 결과인 낮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인 특성인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활동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낙인감은 삶의 만족도보다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낙인감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직접적으

로 우울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결과는 학업중단이라는 경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시각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우울감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들의 우울 수준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의 효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삶의 만족도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자아탄력성보다 자아존중감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애착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지민, 이은경, 2021)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자아탄력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개념적 특성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로 볼 수 있는 반면(Branden, 1969), 자아탄력성은 역경과 적응의 두 가지 구분되는 하위요소로 구성된 개념으로(Luthar, Crossman, & Small, 2015) 역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자신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견해이지만, 자아탄력성의 경우 역경과 적응을 경험할 때 가질 수 있는 개념인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역경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기에 자아존중감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발휘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볼 때, 두 가지 개념 모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나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감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의 고난이나 역경으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수도 있기에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비교적 작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용하는 등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사회적 낙인감으로 인해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삶의 만족도 수준이 떨어져 있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에게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준다면, 우울감의 감소와 삶의 만족도의 향상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학업중단이라는 스트레스 유발 가능 상황에서 모든 청년이 적응에 실패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자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김현지, 양명숙, 2017),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이들이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서 보다 적응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학업중단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업중단자

라는 사회적 낙인감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 자기평가나 강점 찾기, 자기비판 줄이기 등과 같은 전략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학교 환경이나 학업과 관련된 것 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 및 관계적 자원들을 발견하도록 하는 활동을 통해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Arslan, 2019). 특히, 학교 부적응이나 가정 내 갈등, 학업의 어려움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은 주로 위축되어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술치료나 독서치료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단활동이 그들의 참여를 높여 자아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현, 이수진, 2021). 따라서 이를 고려한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잘 적응하여 삶의 만족도가 높은 대상에 대한 연구 및 소개 등으로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려는 노력 역시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아관련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보았다. 하지만 추후연구에서는 자아관련 요인 외에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본다면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적응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실제 현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 실제 현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해석해 볼 수 있고, 보다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우울 및 삶의 만족도는 성별이나 연령,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와의 동거여부와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학업중단 시기, 학업중단 사유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요인들을 통제하였을 때 주요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통제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발달에 있어 인구학적 특성이나 학업중단과 관련된 배경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상의 요인을 고려한 연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들의 보다 나은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권세원, 이애현, 송인한 (2012).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 청소년탄력성모델(Adolescent

- Resilience Model)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39-72.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김민선 (2019). 학업중단 학생들이 지각한 사회적 낙인감과 삶의 만족도, 우울의 관계: 진로장벽과 진로낙관성을 매개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1), 1029-105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1.1029>
-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 1: 결과부문 측정지표 검증.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원영, 서봉언, 김경식 (2017). 과보호 양육, 자아 탄력성 및 사회적 위축이 남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1, 41-69.
<https://doi.org/10.17854/ffyc.2017.07.51.41>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민, 이은경 (2021). 학업중단 후기청소년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3), 231-255.
<https://doi.org/10.21509/KJYS.2021.03.28.3.231>
- 김현지, 양명숙 (2017).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23-34.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3>
- 문화진 (2019).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진로 불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9(23), 445-464.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3.445>
- 박동진, 김나연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3), 71-87.
<https://doi.org/10.36697/skya.2019.5.3.71>
- 박소현, 이수진 (2021). 학교 밖 위기청소년 개입에 대한 집단상담 연구 동향: 2002년~2020년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8(1), 277-310.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277>
- 박주영, 우정희 (2020).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낙인감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2), 97-105.
<https://doi.org/10.15434/kssh.2020.33.2.97>
- 박지선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융합인문학, 8(4), 95-122.
<https://doi.org/10.14729/converging.k.2020.8.4.95>
- 반지윤, 이정민 (2021).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학대가 사회적 낙인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다중집단분석 적용. 청소년학연구, 28(1), 341-366.
<https://doi.org/10.21509/KJYS.2021.01.28.1.341>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상담원.
- 양효선, 김영혜 (2011). 청소년의 수줍음과 우

- 울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10), 187-206.
- 여성가족부. (2018).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 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오혜영, 박현진, 공운정, 김범구 (2013). 현장상담자들이 인식한 학업중단청소년의 특성과 개입방향. *청소년학연구*, 20(12), 153-179.
- 유성경, 심혜원 (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 (2014).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남, 한상미, 김가희 (2020). 학업중단 경험에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4), 97-117.
<https://doi.org/10.21509/KJYS.2020.04.27.4.97>
- 이종원, 황진구, 서정아, 한영근, 허효주, 이영화, ..., 김혜원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IV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562.
<https://doi.org/10.5392/JKCA.2017.17.09.549>
- 전숙영 (2020).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낙인감이 현재생활만족도와 미래 긍정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5(4), 57-72.
<https://doi.org/10.23931/kacp.2020.15.4.57>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2), 485-498.
<https://doi.org/10.22143/HSS21.10.2.35>
- 주금옥 (2002). *정규교육 중도탈락 청소년의 진로장애 지각에 관한 탐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최인재, 모상현, 이선영 (201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최홍일, 이래혁 (2020).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낙인감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1-27. <https://doi.org/10.20993/jSSW.52.1>
- 한국교육개발원. (2020). *2020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편*. 진천,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한아름 (2018). 부모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5(5), 1-24.
<https://doi.org/10.21509/KJYS.2018.04.25.5.1>
- 한아름 (2020).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

- 과 자아존중감과 관계: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0), 207-227.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0.207>
- 허미정, 노미화, 최연실 (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29-49.
<https://doi.org/10.21321/jfr.21.1.29>
-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1), 47-88.
<https://doi.org/10.1111/j.1745-9125.1992.tb01093.x>
- Arslan, G. (2019). Mediating role of the self-esteem and resilience i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exclu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51, 109514.
<https://doi.org/10.1016/j.paid.2019.109514>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Branden, N. (1969). *The psychology of self-esteem*. Los Angeles, CA: Nash Publishing Corporation.
- Cooley, C. H. (2006). Looking-glass self. In J. O'Brien (Ed.), *The production of reality: Essays and readings on social interaction* (4th ed.) (pp. 126-128). California: Pine Forge Press.
- Dentale, F., Vecchione, M., Alessandri, G., & Barbaranelli, C. (2020). Investigating the protective role of global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moderated regression model. *Current Psychology*, 39, 2096-2107.
<https://doi.org/10.1007/s12144-018-9889-4>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Y: Norton.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18>
- Harvey, R. D. (2001).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henomenological impact of social stigm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2), 174-189.
<https://doi.org/10.1080/00224540109600545>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 Kwon, T. (2020). Social stigma, ego-resilience, and depressive symptoms in adolescent school dropouts. *Journal of Adolescence*, 85, 153-163.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20.11.005>
- Liem, J. H., Lustig, K., & Dillon, C. (2010).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merging adults: A comparison of high school dropouts and graduat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1), 33-43.
<https://doi.org/10.1007/s10804-009-9076-9>
- Link, B. G., Cullen, F. T., Struening, E., Shrout, P. E., & Dohrenwend, B. P. (1989). A

- modified labeling theory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An empirical assess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400-423.
<https://doi.org/10.2307/2095613>
- Liu, W. J., Zhou, L., Wang, X. Q., Yang, B. X., Wang, Y., & Jiang, J. F. (2019).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in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adolesc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33(6), 116-122.
<https://doi.org/10.1016/j.apnu.2019.10.004>
- Luthar, S. S., Crossman, E. J., & Small, P. J. (2015). Resilience and adversity. In R. M. Lerner & M. E. Lamb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and developmental science* Vol. III (7th ed.) (pp. 247-286). New York, NY: Wiley.
- McHugh, K. (2015). Second chances: Want to meet the needs of early school-leavers? Focus on their mental health. *The Irish Journal of Adult and Community Education*, 61-74.
- Mickelson, K. D., & Williams, S. L. (2008). Perceived stigma of poverty and depression: Examination of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mediator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9), 903-930.
<https://doi.org/10.1521/jscp.2008.27.9.903>
- Rohde, P.,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0). Are people changed by the experience of having an episode of depression? A further test of the scar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3), 264-271.
<https://doi.org/10.1037/0021-843X.99.3.264>
- Rose, T., Joe, S., & Lindsey, M. (2011). Perceived stigma and depression among black adolescents in outpatient trea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1), 161-166.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0.08.02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ldo, S. M., & Huebner, E. S. (2006). Is extremely high life satisfaction during adolescence advantageous? *Social Indicators Research*, 78(2), 179-203.
<https://doi.org/10.1007/s11205-005-8208-2>
- Vogel, D. L., Bitman, R. L., Hammer, J. H., & Wade, N. G. (2013). Is stigma internalized? The longitudinal impact of public stigma on self-stigma.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0(2), 311-316.
<https://doi.org/10.1037/a0031889>
- Vogel, D. L., Wade, N. G., & Haake, S. (2006). Measuring the self-stigma associated with seeking psychologic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25-337.
<https://doi.org/10.1037/0022-0167.53.3.325>
- Wang, Y., Chen, X., Gong, J., & Yan, Y. (2016).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negative emotions, resilience, and smoking: Testing a moderated mediation model. *Substance Use & Misuse*, 51(4), 427-438.
<https://doi.org/10.3109/10826084.2015.1110176>

1 차원고접수 : 2021.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7.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Effects of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chool Dropouts: Testing a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Kim, Kyungmin

BK21 Four R&E Center for Sustainable Living System,
Korea University

Choi, Jungwon

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in the links from social stigma on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chool dropout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5th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 Youth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Social stigma, self-esteem, self-resilience,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scales were used for 318 school dropou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Model 4 of PROCESS macro.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ss social stigma was related to higher self-esteem, self-resilience, and depression but lower life satisfaction. Also, higher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was related to lower depression but higher life satisfaction. Second,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depression. Third, self-esteem and self-resilience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tigma and life satisfaction, and the magnitude of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was larger.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are discussed.

Keywords: school dropout among youth, social stigma,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self-resilience